

# 元老科學技術者의 証言

〈6〉



## 国内최초 葛布壁紙 생산

### 世界市場서 名聲떨쳐

吳 禎 洙 씨 篇 (下)

내가 새로운 工場을 차린것은 1933 년말 - 總資本金 ( 당시 貨幣로 ) 2 萬圓을 들여 세운 朝鮮 穀物工業社는 日本穀産會社 ( Corn product co. 前身 ) 의  $\frac{1}{100}$  밖에 안되는 規模였다. 複雜한 工程으로 製品을 낼수있는 工場을  $\frac{1}{100}$  로 縮少시켜 만든다는 것은 역시 단순한 모방만으로는 안되었다.

製品過程의 原理만 살려 전혀다른 機械를 設計 製作해야 했었다.

나는 約8 個月동안 피나는 고생끝에 新義州의 垆地 2 千坪에 미니工場을 세웠던 것이다. 이같은 미니工場에서 大量 生産體制를 갖춘 美國 最新式工場과 競争할 수 있었다는 것은 奇蹟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나 내가 생각해 볼진데 절대 기적이 아니었다.

日本穀産會社와 競争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첫째 立地條件이 좋았다.

大工場인 日穀은 年間 7,200 噸 ( 約1,440,000 袋 ) 이란 엄청난 原料가 必要했던 것이다.

그래서 韓國產 옥수수는 總所要量의  $\frac{1}{4}$  도 안되므로 해마다 最低 55,000 噸을 輸入 충당해야했으며 이에따른 輸入稅로 百斤當 1 圓 75 錢을 내야했고 國內原價 5 圓에 대한 35%의 關稅도 물어야했다.

그러나 내가 經營하는 朝鮮穀物工業社는 옥수수 年所要量이 約 700 噸이어서 產地인 新義州에서 無稅로 早期確保를 할수 있었다. 이밖에 木材都市이기도한 新義州에 工場을 가진 나는 原料로 榻榻米를 사용하여 生産原價節減을 꾀하였던 것이다.

그때 榻榻米價格은 馬車當 20 錢 - 運搬費까지 40 錢을 주면 工場까지 가져다 주었다.

이와같이 나는 日穀보다 生産條件이 좋았던것이다.

그런데 1938 年 日本戰爭이 深化되어 가면서 世界大戰이 擴大됨에따라 日本은 그때부터 戰爭 經濟 體制로 바뀌 穀物統制를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옥수수도 配給制가 되어 原料 求得이 어렵게된 나는 滿州로 工場 移轉計劃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후 7~8 개월 걸려 工場移轉을 完了했었다. 新義州에 있을때보다 工場規模를 2 倍나 크게 하였으며 機械들도 많이 改替하였다. 會社이름은 滿洲穀物工業社라 하였다. 工場移轉 한지 2 年後 이곳서도 糧穀統制가 되었으나 우리가 必要한 原料配給을 무난히 받았다.

이무렵 所謂 大東亞戰爭이 터지자 廣東軍第七部隊에서 우리가 生産하는 製品全量을 要求해왔다. 價格停止令으로 高價納品은 못하였으나 당시 停止價에 納品하여도 利潤은 2~3 年間 確保되었다.

그러나 價格停止令으로 인한 나의 工場經營壓迫은 날로 加重되어 갔던 것이다.

1944 年경에는 工場補充資材를 停止價로 구할수 없게되어 하는수없이 暗市場에서 그들이 달라는대로 다주고 사다 施設補修를 하다보니 生産原價의 急上昇으로 工場收支가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때 日本은 南洋等地에서 敗北하기 始作, 마치 戰爭의 終末이라도 알리는듯 했다. 그

래서 나는 工場을 팔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로 하였다. 마침 이때 三井會社 系列인 東洋棉花會社의 葛谷이란 重役이 나의 工場見學을 원하기에 보여주었던 工場을 모두 돌아본 그는 자기와 同業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提案에 약간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이때다하고 어떻게든지 팔아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우리나라 사람 出資者가 3명이나 있어서 同業은 困難하다』고 먼저 말하고 『내몹이 날로 쇠약해져서 工場經營을 계속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讓渡할 意思가 있으니 이왕이면 東洋棉花에서 引受 經營해주었으면 한다』고 고양이 쥐생각하듯 선심을 썼다.

나의 선심이 주요했던지 며칠후 葛谷은 賣買契約을 하자고 하였다. 그후 나는 價格도 決定하고 會社이름도 株式會社 滿洲穀物工業으로 變更, 代金 支拂도 받았다.

그런데 賣買契約을 체결한 그들은 나머지 一部 株式을 가지고 取締役 技師長으로 남아 있어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要求를 강경히 거절할 수 없는 事情이 있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몸이 쇠약하다는 이유로 日本人들에게 말 못할 이유에서 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렴 修養同友會事件으로 治安維持法 違反者로 要視察人物이었다.

만일 이러한 내가 日本의 敗北을 念慮한 나머지 工場을 賣渡하였다고 그들에게 看做된다면 政治犯으로 물리는것은 너무 뻔한 것이다.

이래서 속으로는 싫지만 어쩔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株式 一部를 가지고 取締役 技師長으로 있어야 했다.

그동안 日本人들의 눈치를 채지않게 미리 家族들을 宣川으로 보내놓은 나는 정말로 몸이 아픈것같이 僞裝을 하고 1945年 7月初 내 가족이 있는 宣川으로 나왔다.

이것이 滿洲穀物工業社의 마지막 作別이었다. 日帝敗亡을 이미 안듯 8.15 光復한달 전에 다행히 宣川으로 나온 나는 8월 19일 내 家族과 함께 서울로 왔던 것이다.

서울에 온 나는 빈털털이가 되었다. 露國人の 눈을 피하여 越南하느라 宣川·五竜背·平壤에 있는 집등 不動産은 처분할 시간이 없었고 工場 販買代錢中 韓國에 있는 出資之分을 送金했으나

이것은 送金이 되지 않았다.

또 預金한 돈으로 朝鮮無煙炭會社·小林職業會社·京城紡績株式會社·龜山工作所 株式등을 사가지고 滿洲를 벗어났으나 그 株式등을 放賣하기 전에 日本이 降服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白紙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거지가 되었지만 家族들이 무사히 越南한것만으로 더할수 없는 기쁨으로 여겼다.

美軍政3年— 나는 國家 요청에 따라 軍政廳 商工部 責任者로 출몰 일했었다.

이때의 滿3년간이란 세월은 國家나 나 個人으로 볼때 非生產的인 生活이었다.

美國은 오랜 占領을 원치 않았으나 占領地를 蘇聯에 내어줄수 없어 끌고 나온것이 3年이었는데 이때 國家와 經濟發展같은 것은 그들에게 任務外의 일이었고 그 밑에있는 나는 俸給이 生活費도 안돼 家族들의 營養을 充當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生活을 하던끝에 政府樹立이 되어 商工部 후계자로 任永信長官이 오게 되었고 그후 나는 새로생긴 貿易會社社長으로 자리를 옮겨 일했다.

貿易會社로 자리를 옮겨 일한지 얼마 안된 때이다. E.C.A와 貿易局에서는 東南亞經濟視察團을 구성, CNA의 비행기 一臺를 전세내어 파견기로 했었다.

나는 團長으로 選任되어 일본·대만·태국·필리핀·싱가폴등 14個國을 약 40일간에 걸쳐 踏査를 마치고 歸國했다. 이때가 1950年 1월 20일경— 旅裝을 풀고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6.25가 발발한 것이다.

나는 아무런 準備도 없이 政府를 따라 釜山으로 避身했다. 釜山에 가서 나는 貿易業者協會 副會長으로 취임했다. 貿易業者協會 副會長으로 선임된 것을 알게된 것은 내가 東南亞를 視察하는 도중에서였다.

하여튼 나는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67년까지 계속 副會長에 連任되었고 그후 6년간은 貿易協會 顧問으로 1975년까지 奉職하게 되었다.

釜山 避難시절이다.

商工部에서는 日本과의 貿易에서 所謂 請算計 定貿易으로 重要物資를 政府對 政府 去來가 必要하게 되므로 政府代行機關을 만들라고 業者들에

게 지시했었다.

이에따라 貿易業者들은 12億환을 들여 會社를 조직하고 나를 社長으로 選任했었다.

이 會社는 業者들과 政府의 輸出入代行業를 하며 包裝·運輸등 業者들의 便益을 보아주는 奉仕機關이므로 業者들과 競爭되는 事業은 禁止되었었다.

이 會社가 막상 設立되자 政府는 重要物資의 輸出入代行業를 시켜주지 않았고 定款上 業者와 競爭되는 事業은 금지되었던 고로 會社收支가 말이 아니었다.

하는수없이 定款을 고쳐 競爭事業도 할수 있게 함과 동시에 원하는 株主에게는 出資金을 반환하여 資本金을  $\frac{1}{4}$ 로 減資, 1953년 남은 株主 40명으로한 보통회사로 전환해 버렸다.

나는 당시 일본·싱가폴·홍콩支店을 설치하고 外國에서 輸入되는 생고무·綿絲·米穀등의 輸入앞선으로 상당한 收支를 맞출수가 있었다.

그러던 중 E.C.A는 그들의 援助로 購入되는 생고무·朱錫등의 物資는 美軍의 保有物資局으로 하여금 구입해야 된다는 規定을 발표 하므로 싱가포르支店の 業務는 無實化되었고 홍콩방면 雜貨도 國內生産의 증가추세에 따라 去來가 점차 줄어들어 그 두 支店은 廢鎖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후 나는 新商品開發의 一環으로 1960년부터 葛布壁紙製造에 國內에서 제일먼저 着手, 일본을 누르고 世界市場에서 韓國壁紙의 名聲을 높이는 데 盡力하였었다. 이무렵 4.19 學生革命이 있었고 先入 閣僚인 全某씨가 나를 찾아와 入閣을 요구하기에 어쩔수 없이 승락, 遞信部長官, 商工部長官을 歷任한바 있는데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었으나 在任동안 不條理要素척결에 전력했었다.

美軍政 3년은 크게 兩期로 나눌수있다.

1945~1946년 1년간은 行政府處의 長이 美國人이며 韓國人은 補佐兼 顧問이던 때이고, 1946~1948년 까지는 韓國人部處長에 美國人은 顧問이던때이다.

商工部の 경우 美國人 鑛工局長, 언더우드 大領은 韓國人補佐도 정해지지 않은 新任初 金모라는 詐欺漢의 述策에 넘어가 三陟炭鑛과 朝鮮郵船會社 管理權을 許諾해주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商工界는 勿論 一般國民도 의아했었다.

하필이면 그같은 詐欺漢에게 맡기느냐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했었다.

그때 나는 京畿道知事 部下인 스케터少領을도와 각 生必需品工場의 運當促進業務를 돕고 있을 무렵인데 金모명의로 三陟炭鑛開發技術者와 朝鮮郵船會社 船員 모집 래디오 뉴스를 듣고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언더우드大領에 보내는 英語陳情書 한통을 써 스케터少領으로 하여금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의 陳情書를 接受한 언더우드大領은 곧 CIA에 金모의 身上調査를 시키고 나를 불렀다. 스케터少領과 함께 그의 事務所에 가자 스케터少領더러 나를 自己에게 양보하고 다른사람을 구하라 했다.

나는 이때부터 언더우드鑛工局長 補佐官이 되었으며 金모는 구금은 勿論, 三陟炭鑛과 朝鮮郵船의 管理權을 모두 잃게 되었다.

延白맞은편서 머지않은 곳에 海州가 있다. 三八線이 海州半島南瑞朝鮮시멘트工場敷地 以北에 놓여있다. 故로 그 工場을 당연히 南韓美軍의 統治下에 있어야 할것인데 교통이 불편한 탓으로 蘇聯軍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朝鮮시멘트工場을 찾기로 하고 美軍大尉와 나를 비롯 化學課 職員1名, 海州市民1名으로한 4명은 延白專賣廳 所有 똑딱신을 타고 工場으로 向했다.

우리들이 탄배가 淀泊해서 막 下陸하자 마자 蘇聯파수병이 호각을 불며 따발총을 들이댔다.

우리는 그 파수병에 의해 蘇軍大尉에게 끌려갔다. 蘇軍大尉는 우리가 오게된 경위를 들은후 美軍大尉만 海州邑으로 데리고 갔다.

나머지 우리들이 끌려가 한사람씩 문초를 당한 것은 해질무렵.

문초를 다받고 同行했던 美軍大尉와 우리가 끌려난것은 完全히 어두워진 후였는데 우리는 그들이 내준 추력을 타고 海岸까지 와서 우리들의 배를 타고 延白으로 돌아왔다.

蘇軍과 만나고온 美軍大尉말에 의하면 『그시멘트工場이 三八線以南에 있는것은 사실이나 그 工場을 美軍에게 주고 안주는 것은 現地에서 決定할수 없으므로 願한다면 平壤이나 모스크바까지 보내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